

목회의 프락



이동균 목사
해성교회 담임

거리에는 캐럴이 흐르고, 상가들과 교회에는 반짝이 전구가 달려 화려하다. 정작 이 계절이 가장 힘든 분들도 많다. 겉으로 보기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며 웃고 즐거워 하는 날이지만, 속으로는 "올 한 해를 겨우 버렸다"고 중얼거리며 누워 있는 이들도 있다.

병원 병실에서 성탄을 맞는 분들이 그렇다. 링 거름에 매여 시퍼런 손을, 산소호화도 수치가 찍히는 모니터, 간헐적으로 울리는 경고음 사이에서, 창밖에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있다. 환자 곁을 지키는 보호자들은 작은 미니 트리 하나를 병상 머리맡에 놓아 보지

않아 하루 살던 민중들. 로마 권력에 놀려 고향을 떠난 사람들, 바로 그 어두운 밤, 그 불안한 사람들에게 들려온 첫 소식이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아기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었다.

성탄의 복음은 우리의 문제를 단번에 없애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너 혼자가 아니다. 나는 네 곁을 안다. 나는 높은 궁궐이 아니라 네가 있는 바로 그 밤새나는 낮은자리로 가겠다." 찬양대가 노래하는 화려한 예배당만이 아니라, 고독한 병실, 텅 빈 거실, 야간근무자들이 커피를 마시는 편의점 카운터 옆에도 조용히 찾아오시는 분이 성탄의 주님이시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성탄절에도 웃지 못하는 얼굴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병원 대기실 플라스틱 의자에 두 손을 모으고 앉아 있는 보호자의 뒷모습, 병원 계단 모서리에 쪼그리고 앉아 탄원서를 들고 눈물을 흘리는 이의 뒷쪽이는 어깨, 장례식장 복도 벤치에 기대어 말없이 서로 손만 잡고 있는 가족들. 그 곁에 앉아 있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다. 그럴 때 떠오르는 말은 길지 않다. "나도 함께 있었습시다. 혼자가 아닙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분들 가운데에도, "성탄, 새해... 그런 말도 꺼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마음

성탄의 밤, 잠 못 이루는 이들에게

만, 마음속 기도는 한 가지뿐이다. "하루만 더, 숨 한 번만 더 편안히 쉬게 해 달라."

집에서 홀로 겨울을 나는 어르신들도 있다. "괜찮다, 나는 다 익숙하다." 말씀하시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복도 쪽을 슬쩍 바라보며 발자국 소리를 기다리실지 모른다. 성탄이라고 해서 특별한 선물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초인종 한 번 울리고 "어머니, 잘 계시죠?" "장로님, 안부 인사 드려주세요." 이렇게 찾아와 줄 사랑을 기다리신다.

누군가는 재판을 앞두고 성탄을 맞는다. 어떤 이는 채무 독촉장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혹은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고 한숨을 내쉬며 달력을 넘길 것이다. 산타를 기다리보다 동기 우연물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 "내년에는 재발 좀 마음이라도 편안했으면 좋겠다. 더 나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비라는 이들도 있다.

전쟁과 재난의 소식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지구 반대편, 혹은 뉴스 화면 속 어딘가에서, 집을 잃고 가족을 잃은 채 성탄을 맞이하는 이들이 있다. 어쩌면 우리 시대의 마구간은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속, 난민 천막의 차가운 바닥,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이주노동자의 비좁은 방일 수도 있다. "평화의 왕"을 노래하지만, 현실의 평화는 너무 멀어 보인다. 등에서 어두운 밤 찬 바람 소리에 몸을 웅크리며 양떼를 지켜야 하는 목자들도 그날 밤에 그렸다.

그러나 원래 성탄은, 편안한 사람들만을 위한 화려한 축제가 아니었다. 첫 성탄의 밤에도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었다. 인구조사 명령에 떠밀려 고향을 떠나야 했던 요셉과 마리아, 아이를 낳을 방 하나 구하지 못해 마구간에 자리를 펴야 했던 젊은 부부,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하루

의 문을 닫아두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중얼거리는 분들도 있다. 기도 제목을 적으려면 도무지 손이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는 분들도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성탄의 아기는 살 그머니 다가와 이렇게 속삭이는 듯하다. "지금 이 마음 그대로 들고 있어도 된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된다. 눈물이 나면 울어도 된다. 나는 네 편이다." 믿음이 크고 화려해서가 아니라, 흔들리는 무릎으로도 주님을 향해 한 걸음만 더 떼어 보겠다는 그 마음 하나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분이시다.

어둔 겨울밤이 깊어도 새벽은 반드시 찾아온다. 올음의 밤이 지나면 언젠가 자난날을 돌아보며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견뎌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말할 날이 올 것이다. 성탄의 그 빛이 병원 병실에도, 공사장 칸테이너 속에서도,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자리에도,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의 초조한 마음에도,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이의 깊은 한숨 속에도 스며들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우리가 기다리던 주께서 꼭 오신다. 평화를 그리며 울었던 사람들, 전쟁터에서 포탄에 맞아 팔과 다리를 절단당하고 절망하며 울었던 사람들이, 7년여 세월동안 눈물의 밤을 지새웠던 사람들에게 주께서 찾아가시리라.

성탄의 주께서 우리 곁에 조용히 서 계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잊지 않겠다." 그 약속을 다시 새겨 주시는 계절이 성탄이고, 곧 다가오는 새해다. 아픈 이들에게는 위로로, 지친 이들에게는 힘을, 눈물 많은 이들에게는 언젠가 다시 웃을 날을 주시는 성탄, 그리고 새해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주의 추천음반

기획 : 인피니스 (:한국)



창조의 목적 - 잠잠히 주를 바랄 때 (CD)

"잠잠히 주를 바랄 때"는 혼란과 불안 속에서 방향을 잃은 아들에게 고요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된 CCM 앨범이다.

이번 앨범은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과 실력과 연주자들이 의기투합해 클래식적 깊이와 대중음악의 따뜻함을 절묘하게 결합한 곡들로 구성되었다.

앨범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차분하고 묵상적인 톤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각 곡들은 성경의 메시지를 기반으로 삶의 고통 속에서도 끝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여정을 담고 있다.

특히 동명의 타이틀곡 〈잠잠히 주를 바랄 때〉는 삶의 폭풍 속에서 멈추어 서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아들의 마음을 대변한다. 이어지는 곡들에서는 '시편 23편'의 위로, '날 위해 고령당하신 주'의 십자가 묵상, '우리는 눈 먼 양같이'의 자아 성찰 등 신앙의 다양한 정서를 음악으로 풀어냈다.

이 앨범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머무는 시간"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금 믿음의 고백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 창조의 목적: 그룹 '토다'와 부산의 성산교회를 모태로 결성되었고, 클래식적인 CCM을 추구하는 밴드.



올해는 마치 크리스마스가 오지 않을 거 같았던 적이 있었어요. 인생의 가장 처절한 고통 속에서 괴로워 하던 아들도 많았습시다. 그럼에도 변함없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네요.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도 따뜻한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역시 성탄은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생명의 그 자체입니다. 창조주께서 세상을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보내신 구원의 역사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목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진 캐롤들을 가족 모두 모여서 불러 보면 그 성탄의 의미가 더욱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양으로 인도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곡이 처음에는 성탄절뿐 아니라 왕의 대관식이거나 특별한 행사에서도 불렀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참 반가운 신도여"는 단순한 성탄 찬송을 넘어,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선포하는 곡으로 자리 잡았습시다. 오늘날에도 교회 성가대가 성탄예배의 시작을 알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곡 중 하나입니다.

3. "Joy to the World"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이작 왓츠(Isaac Watts)가 시편 98편을 바탕으로 작사한 이 곡은, 현실의 음악적 영향을 받은 멜로디로 세상에 널리 퍼졌습시다. 원래는 성탄절을 위해 쓰인 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노래하는 찬송이었습시다. 그러나 그 가사가 성탄의 메시지와도 너무나 잘 맞아 성탄 찬송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19세기 이후 성탄절마

가장 장엄한 순간을 장식합니다.

5. "O Holy Night" (오 거룩한 밤)
플라시드 카포(Placide Cappeau)가 가사를 쓰고 아돌프 아담(Adolphe Adam)이 곡을 붙인 이 찬송은, 성탄의 경외와 감격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표현합니다.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처음 불렀을 때, 가사의 힘과 선율의 아름다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울렸습시다. 그러나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작곡가 아담이 오페라 작곡가라는 이유로 이 곡을 한때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사랑은 막을 수 없었고, 결국 이 곡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시다. 특히 미국에서는 1906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라디오로 최초의 성탄 방송이 송출될 때, "O Holy Night"이 전파를 타며 역사적인 순간을 장식했습니다. 그날 밤, 전파를 통해 울려 퍼진 찬송은 성탄의 메시지를 새로운 시대에 맞게 확장시킨 사건이었습시다.

성탄 찬송은 단순히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를 고백하는 신앙의 언어입니다. 대림절 동안 교회는 촛불을 하나씩 밝히며 기다림과 소망을 표현합니다. 성탄 전야에는 촛불예배와 캐롤로 예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이러한 전통 속에서 찬송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다섯 곡을 통해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찬송은 단지 노래가 아니라, 구주께 드리는 감사와 감격에 찬 경배입니다. 크리스마스까지 한 주일이 남았네요. 할렐루야!!!!



이동균 목사
미아노스 찬양선교회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션21 후원교회

대한 예수교장로회 하남교회 표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여 기쁨을 나누는 사랑의교회(1-12월) 주일오전 1부 7:30, 2부 9:30, 3부 11:10, 4부 12:50, 주일오후 2:30, 수요일예배 7:00 담임 김준태 목사 62333 광주광역시 광안구 성암동 76-12 (대표전화: 062951-9999 FAX: 062952-5304)	대한 예수교장로회 사랑의빛교회 표어: 예수사랑 가족사랑 주일오전 11:00, 주일오후 1:30, 수요일예배 7:00, 금요일기도회 7:30 담임 이철재 목사 62244 광주광역시 광안구 도전동 124-19 (도전동 356-11) (대표전화: 0623171-8206)	대한 예수교장로회 신창교회 표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 28:19)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주일오후 2:30, 수요일예배 7:00 담임 김승현 목사 62287 광주광역시 구원동 291(신창동) (대표전화: 062953-5374)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광주한빛교회 표어: '빛'이 사랑으로 빛을 발하며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주일오후 2:00, 수요일예배 7:30, 새벽기도회 5:00 담임 박성현 목사 61746 광주광역시 남구 노수동 41번길 31(노수동) (대표전화: 062476-8831)	대한 예수교장로회 광주서남교회 표어: '주'에 자유롭게 헌신 주일오전 1부 7:00, 2부 9:00, 3부 11:00, 주일오후 2:00, 수요일예배 7:00, 새벽기도회 5:00 담임 조태현 목사 61657 광주광역시 남구 천대동 12 (대표전화: 062652-1004 FAX: 062671-5313)	대한 예수교연합운동선교회 광주광명교회 표어: 주께 구하라, 기려 올림으로(시 121:1) 주일오전 1부 11:00, 주일오후 2:00, 수요일예배 7:00, 목요일예배 7:30, 금요일예배 7:30, 주일오후 2:00, 수요일예배 7:00, 새벽기도회 5:00 담임 고석현 목사 61652 광주광역시 남구 동산로 43 (대표전화: 062366-3058 FAX: 062369-3058)
대한 예수교장로회 광주은평교회 표어: 사랑의 삶 전도 선교 구역 주일오전 10:40, 주일오후 1:40, 수요일예배 7:15, 금요일예배 8:30, 새벽기도회 5:00 담임 김병택 목사 62002 광주광역시 서구 문정로13번길 7-1 (평문동) (대표전화: 062375-7962 FAX: 062375-7962)	대한 예수교장로회 새희망교회 표어: 삶에 새희망을 주는 교회 주일오전 1부 7:30, 2부 9:00, 3부 11:00, 주일오후 2:00, 수요일예배 7:30, 새벽기도회 5:30 담임 허태호 목사 62253 광주광역시 광안구 천대동 79-5(천대동) (대표전화: 062371-9160 FAX: 062372-9190)	대한 예수교장로회 푸른솔교회 표어: '빛과 소망'이 있는 교회 주일오전 1부 8:00, 2부 11:00, 주일오후 2:30, 수요일예배 7:30, 새벽기도회 5:00 담임 김사라 목사 62308 광주광역시 광안구 수완동11번길 47 (대표전화: 062953-4620 FAX: 062953-5522)	대한 예수교장로회 서광주교회 표어: '이전'을 통해 더 큰 교회 주일오전 2부 11:00, 주일오후 2:00, 수요일예배 7:30, 새벽기도회 5:00 담임 조규성 목사 61649 광주광역시 남구 북문로 99번길 10 (대표전화: 062365-7004 FAX: 062365-7004)	대한 예수교장로회 동서남북교회 표어: 믿음과 기도로 거룩한 성도의 산 주일오전 11:00, 주일오후 2:00, 목요일예배 7:30, 금요일예배 7:30, 주일오후 2:00, 수요일예배 7:00, 새벽기도회 5:00 담임 박영희 목사 506-301 광주광역시 광안구 도전동 77-25 (대표전화: 062656-0114 FAX: 062656-3221)	대한 예수교장로회 장성제일교회 표어: '내가 여기 왔네' (시 138:1)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주일오후 2:00, 수요일예배 7:30, 목요일예배 7:30, 주일오후 2:00, 수요일예배 7:00, 새벽기도회 5:00 담임 이영수 목사, 담임 홍종현 목사 57222 장성군 장성읍 내곡리 6 (대표전화: 061383-4551 FAX: 061393-4552)
대한 예수교장로회 신원벨엘교회 표어: '영혼'이 주는 복을 받으라 (시 103:1) 주일오전 11:00, 주일오후 1:30, 목요일예배 7:00, 금요일예배 7:00, 수요일예배 7:00, 새벽기도회 5:00, 주일오후 2:30 담임 김형수 목사 62002 광주광역시 서구 문정로13번길 7-1 (평문동) (대표전화: 062226-1009)	대한 예수교장로회 광주산수교회 표어: 새 삶을 행하는 교회 주일오전 1부 7:50, 2부 9:00, 주일오후 2:00, 수요일예배 7:30, 새벽기도회 5:00 담임 임준수 목사 61411 광주광역시 남구 동문로 173 (대표전화: 062263-0623 FAX: 062264-8750)	대한 예수교장로회 여수영락교회 표어: 주께, 자유롭게 헌신 주일오전 1부 8:00, 2부 11:00, 주일오후 2:30, 수요일예배 7:30, 새벽기도회 5:00 담임 김성기 목사 50754 전남 여수시 신월로 668-1(국동) (대표전화: 061941-6510 FAX: 061941-6514)	한국기독교장로회 광주백운교회 표어: 사랑으로 하나되는 교회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3부 2:00, 주일오후 2:30, 수요일예배 7:30, 금요일예배 7:00, 새벽기도회 5:00 담임 박정현 목사 61660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로 7번길 8 (대표전화: 062951-0388 FAX: 062951-6228)	대한 예수교장로회 봉황임마누엘교회 표어: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지역 선교사 주일예배 11:00, 수요일기도회 7:00, 금요일기도회 8:00, 새벽기도회 5:30 담임 박병철 목사 나주 봉황면 봉황로 2(봉황면사무소) 121-121(봉황면사무소) (대표전화: 010-6632-1033(박병철 목사))	대한 예수교장로회 광주남부교회 표어: 참 교회가 있는 행복한 교회 (행 2:42)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주일오후 2:00, 목요일예배 7:00, 금요일기도회 7:30, 주일오후 2:00, 수요일예배 7:00, 새벽기도회 5:00 담임 서한국 목사 61614 광주광역시 남구 문정로 62번길 7 (대표전화: 062352-9191 FAX: 364-7171 FAX: 364-7175)